

국난 이기고 명승고적으로... 선인의 슬기 숨쉬는 '역사교실'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10 무등산을 지켜온 사찰

무등산에는 증심사와 원효사 등 사찰이 분포돼 있다. 무등산 사람들은 그동안 수차례 국난과 전란에 시달리면서도 선조의 슬기와 지혜로 중창(重創)되고 보존돼 왔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무등산 내 사찰 등 불교유적도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등산 내 사찰을 소개한다.

◇증심사=무등산 서쪽 기슭의 등산로에 자리 잡고 있는 증심사는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증심사는 철감선사 도윤(798~868년)이 860년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94년 혜조국사가 증건한 후 1443년 김방이 증수했다고 한다.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1609년 석경, 수장, 도광 등 세 선사가 증수했다.

하지만, 6·25 한국전쟁 때 오백전(五百殿)과 노전(龍殿), 회심당만을 남기고 모두 전소됐다. 1970년 대웅전을 시작으로 각종 부속 건물을 차례로 복원했다. 증심사에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31호)을 비롯한 삼층석탑(광주시 유형문화재 제1호)과 석조보살입상(광주시 유형문화재 제14호)이 있다.

◇약사암=증심사의 부속 암자인 약사암은 철감선사 도윤이 증심사를 세우기 직전인 850년경 '인왕사(人王寺)'라는 이름으로 지었다. 고려 충렬왕 32년(1306)에 절을 고쳐 세우면서 '약사암'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경내 건물로는 대웅전, 윤림당, 윤림선원, 강원(講院) 등이 있다. 대웅전은 석가여래를 모신 증심 건물로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에,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꽤 있다. 대웅전에 모신 석조여래좌상(보물 제600호)과 대웅전 앞에 있는 3층석탑은 9세기경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효사=무등산 북쪽 산 중턱에 위치한 원효사는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의 지증왕(재위

500~514년)이나 법흥왕(재위 514~540년)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무왕 때 신라의 국사 원효스님이 머물면서 암자를 개축한 뒤 원효사·원효당·원효암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정유재란 때 전소한 뒤 증심사를 증창했던 석경이 직접 기와를 구워 증창했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됐으며, 이후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된 대웅전, 선원, 요사 등을 증건했다. 1989년 현직스님이 부임해 와 원효대사의 영정을 모시는 개산조당, 약사전, 삼성각, 회암루 등을 신축했다. 또 요사채인 심경당은 2층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한편, 원효사에는 화가 오지호가 장모의 부탁으

증심사·원효사 등 광주 대표 사찰

침략·전쟁의 고비마다 구국 거점

천년 세월 보존... 더 빛나는 가치

로 그린 탕화가 있다.

◇관음암=원효계곡의 가파른 산비탈에 있는 관음암은 원효사에 속한 암자였으나 지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음전·극락보전·요사채로 이루어진 작은 규모의 암자다. 본전(本殿) 역할을 하는 극락보전 뒤쪽 암석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불단을 마련해 놓으며, 극락보전 뒷면 밖 바위벽에 아미타불을 조각해 불단으로 모시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대웅전 좌측 자연암벽에는 마립불이 새겨져 있다.

◇규봉암=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하고 이후 순응대사가 증창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천년의 긴 역사를 지닌 규봉암은 고려말 왜적의 침략을 막아낸 격전지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때 전소돼 방치되던 중 1959년 조그마한 법당으로 복구됐으나, 결국 폐허가 됐다.

이어 1991년 정인스님이 주지로 부임해 관음전을 증창했고, 일주문과 종각을 지었다. 규봉암 주변은 광석대와 입석대, 서석대 등 무등산의 3대 석경이 자리 잡고 있다.

◇석불암=무등산 지공너덜 윗길로 가면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바위벽에 마애여래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지역민들은 이곳을 석불암 또는 석굴암이라 부른다. 한국전쟁 때 절이 불타 폐사됐다가 소규모 불전인 운수선원이 들어서면서 명백을 유지하고 있다. 법당 뒤편에 암벽을 이용해 높이 225cm, 너비 200cm 되는 석조불상을 만들고, 그 안에 높이 98cm, 대좌높이 36cm, 어깨 폭 40cm, 무릎 폭 72cm의 불상을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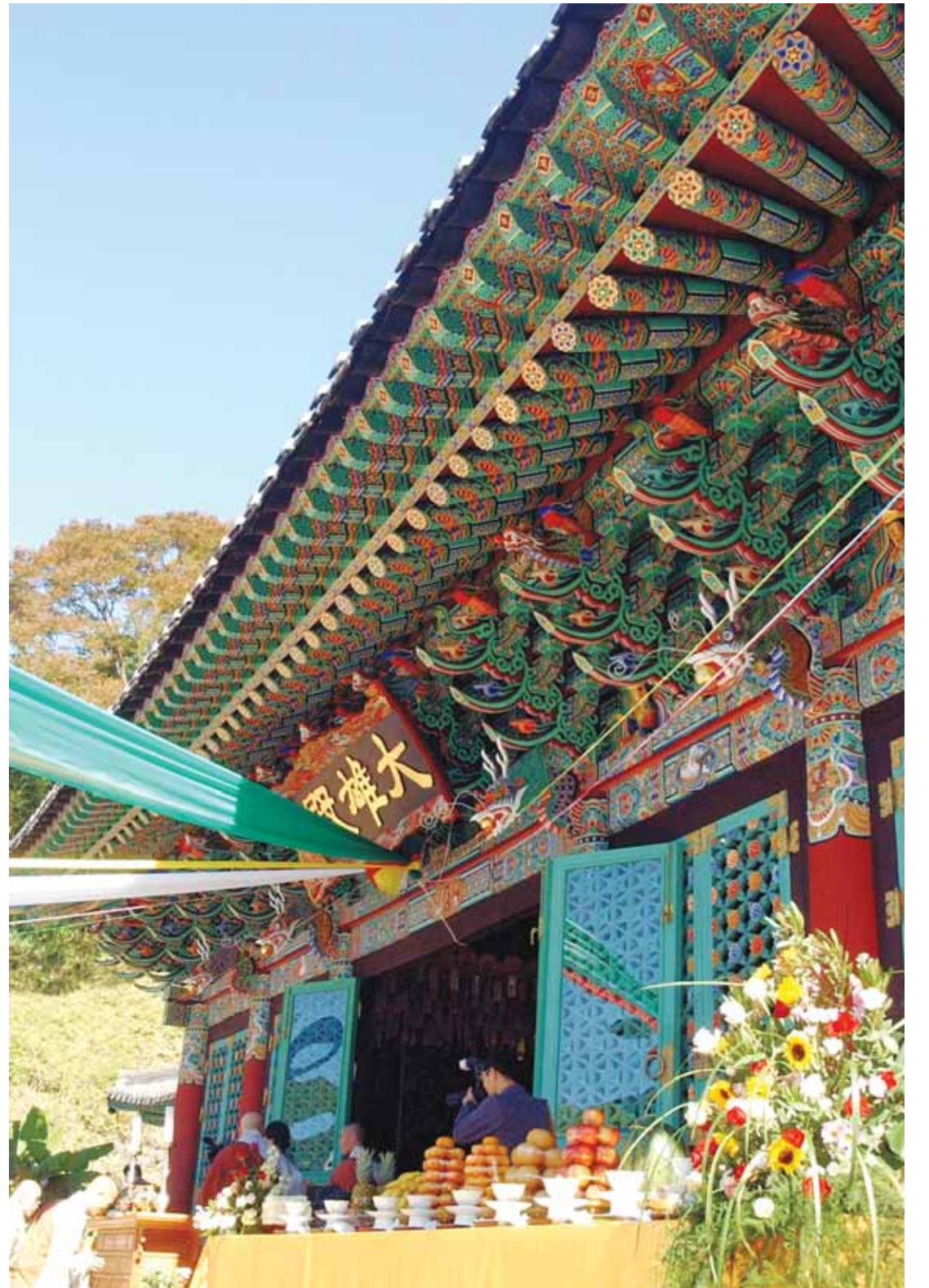
◇문민정사=증심사 바로 아래 무등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문민정사는 1959년 창건됐으며, 이전부터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장문민 여사가 평생 모은 돈으로 문민정사를 창건했는데, 당시 대웅전 건립을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기단석과 기왓조각, 도자기 파편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고향인 평양인 장문민 여사는 광주에서 사업으로 재산을 모았으나 물려줄 형육이 없자 불교에 귀의하고 문민정사에서 보리살이란 법명으로 여생을 보내다 1987년 삶을 마감했다.

◇만연사=무등산 자락 동쪽에 위치한 만연사는 척불사상이 한창이던 조선시대 초기에도 자복사(資福寺)로 남아 있을 만큼 비중 있는 큰 사찰이었다. 하지만, 창건에 대한 문헌이 없으며, 만연선사가 고려 희종 4년(1208년) 창건했다는 설화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한국전쟁 때 전소돼 1978년 이후 대웅전, 나한전, 명부전, 한산전, 요사채가 복원됐다. 만연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사적지이기도 하다. 1980년 당시 계엄군에 항거한 화순군민들이 화순경찰서 무기고에서 옮겨온 300여점의 무기를 이곳에 숨겨두기도 했다.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젊은 시절 부친이 화순 현감으로 부임하던 때에 만연사 동림암에 거처한 적이 있으며, 국왕 이동백, 이남치, 정광수, 임방울 등이 일제 강점기에 득음을 수련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미당입니다.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지난 2010년 10월 광주시 동구 윤림동에 위치한 증심사에서 대웅전 단청작업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와 무등산 안시영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국 명산 관리 경험 무등산에 바치리



무등산 마니아인 안시영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해 4월 무등산 서석대에서 포즈를 취했다.

어린 시절 마당에서도 무등산 정상이 보이는 집에 살았다. 무등산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매 계절마다 친구들과 무등산을 오를 정도였다.

광주효동초등학교와 동성중, 광주고를 졸업한 뒤 타지역에서 대학과 직장생활을 할 때도 항상 무등산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다. 각지생활 도중 힘들고 지칠 때면 광주로 내려와 무등산을 오르고 나면 얻던 힘도 절로 생겨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근무하게 된 것도 무등산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4월에는 무등산 정상개방 소식을 접하고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정상을 밟기도 했다. 너무도 화창하고 좋은 날씨 덕분에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처장으로 재직중이던 당시만 해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그 무등산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내가 배치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무등산 서석대 정사에서 정년 후 무등산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을 뿐이다. 지난 1987년 국립공원관

리공단 창단 멤버로 입사해 지리산과 내장산, 소백산, 북한산, 월출산 등 전국의 명산은 모두 거치면서 얻은 경험을 내 고향 명산인 무등산 보존에 바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노후계획이 앞당겨졌다. 특히, 막중한 임무까지 추가됐다. 지난해 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광주·전남 출신들로 준비단이 꾸려졌고, 이 준비단장을 내가 맡게 된 것이다.

또 올 3월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정식 출범하면서 초대 소장을 맡는 영광까지 얻었다. 가슴 벅차면서도 엄청난 책임감이 몰려왔다.

요즘 하루 일과는 무등산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선 무등산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곳곳을 돌아보며 지형을 익히고, 훼손된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도 관찰중이다. 또 국립공원 무등산의 품격에 맞게 주요 탐방로와 안내 간판 정비, 주차장, 탐방객 지원 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무등산 갤러리 진양옥 작 '무등산' (1984) Oil on canvas(53 X 65.1cm)

고(故) 진양옥 화백 아들이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리신 마지막 작품 중 하나다. 자연에 깃든 원색을 살리면서 사실성과 환상성을 조화롭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다. 스펀지라는 특이한 기법을 사용해 몽환적인 느낌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